

강외중앙교회 김영신 권사의 기도가 열매를 맺다

우간다 부주코지역에 ‘부주코교회’ 봉헌



충북지방회 강외중앙교회(안진봉 목사) 김영신 권사가 우간다 부주코지역에 ‘부주코교회’를 신축하고 봉헌했다.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적도상에 있는 공화국으로 산·고원·숲이 많아 제법 경치도 좋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풍부한 나라이다.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주로 농업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이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 의료 서비스와 교육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남동쪽으로는 빅토리아호에 면해 있으며, 남서쪽은 탄자

니아와 르완다, 서쪽은 콩고민주공화국, 북쪽은 수단, 동쪽은 케냐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구의 1/2 가량이 로마 가톨릭교도, 1/3은 개신교도이며, 소수만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간다인들은 전통 신앙을 유지하거나, 전통 신앙에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를 혼합한 신앙 형태를 취해 왔다. 우간다는 한국과 1963년 3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은 이듬해 4월에 주 우간다 대사관을 개설했다가 1994년 10월에 공관을 폐쇄했으며 이후 2011년 12월에 재개설했다.

이들도 생소한 우간다에 교회를 봉헌하게 된 배경에는 강외중앙교회와 안진봉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강외중앙교회는 해외선교교회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하던 중 4~5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초 ‘부주코교회’는 원래 있던 현지의 허름한 교회를 얹고, 강외중앙교회 김영신 권사와 전종구 형제의 이름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다. 이 일을 위해 김영신 권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드는 일체 비용(12,000달러)을 은혜로 드렸다. 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은 충북지방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교회와 지방회의 자랑이며 예성총회의 축복이라고 여겨진다. 부주코교회 머릿말에는 ‘대한민국 강외중앙교회 김영신 권사와 전종구 성도의 헌신으로 지어졌다’고 새겨져 있다. 강외중앙교회는 우간다 부주코교회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제2호 해외선교교회 재정전 봉헌과 우물선교사역 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충북지방회 주재기자 안영주 목사

선교지편지

인도차이나 초교파 선교사대회를 준비하며



살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보내주시는 기도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께 이끄시고 일하시는 태국坎坎 ATC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 ATC 제자훈련센터의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역 젊은 나이에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8년간 동고동락하며 매일 성경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나아가서 전도하는 반복의 삶으로 훈련받은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 원주민교회 목회사역

타이쉴라교회와 벤엘반무앙교회에서 영적인 돌봄과 성장을 돕고 있으며, 특히 개척 2년 6개월째를 맞은 푸위양 아가페교회와 논팻타나교회 그리고 싸완논병교회는 초기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 복음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 KIS 신학대학원을 통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이들이 태국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회학교와 청소년들을 맡고 비전으로 세우는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을 안에서 자라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태국의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 인도차이나 초교파 선교사대회를 준비하며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제26차 인도차이나 5개국 한인 선교사 태국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인도차이나 지역 선교사를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전략을 나누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이 대회를 위해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모든 팀이 한마음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대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대회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3박 4일간 태국으로 모이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십시일반 후원(우리 은행 228-016174-02-101 송현관과 정보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태국坎坎에서 송현관, 배명실 선교사 올림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3) 알바니아 주준성 선교사

낮선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며 2002년 4월, 우리 가족은 알바니아에 입국해 수도 티라나에서 1년간 언어를 배우며 정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바니아어는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당시 인구 280만 명(인천광역시 인구와 비슷) 남짓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단 하나. 현지에서 부딪히며 익히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번역 앱이 없던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알바니아-영어 사전은 펼치고, 영어-한국어 사전을 번갈아 보며, 들은 단어의 뜻을 어떻게 유추해야 했습니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정확히 이해한 걸까?” 하는 의심 속에서도 ‘자주 쓰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함께 돌보며 언어를 익혀야 했습니다. 1년 6개월 된 첫째, 갓 100일을 넘긴 둘째를 키우며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매 순간이 한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진도가 늦더라도 어떻게든 함께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 학원 수업은 포기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주 3~4회씩 개인 교습을 받으며 언어를 배워갔습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의 낮선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은, 복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생활 속 관계를 통한 접근은 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이 지역에 이미 세워진 ‘기쁨의 집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에, 우리는 가장 단위로 처음 정착하여 사역을 맡게 되었고, 언어도 문화도 서툴렀지만, 함께 찬양하고 웃고 울며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가까이 지내며 함께 살아낸 시간들은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설플 언어보다 더 깊이 다가간 것은 진심이었고, 설명보다 강했던 것은 함께 살아낸 믿음의 고백, 곧 복음이었습니다. 한때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고백하던 그 공동체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알바니아 사역의 첫 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주님 폐천에서의 교회 사역이 어느덧 1년 가까이 되어가던 2003년 성탄절 무렵, 교회 청년들과 함께 행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나와 분주히 움직였고, 아내는 청소년들에게 율동을 가르치며 사역 중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무언가를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는지 급히 대문을 열고 나갔고, 한결이(3살)는 놀고 있던 30cm 자를 입에 문 채 “엄마!”를 외치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시골집 철문처럼 자동으로 닫히는 대문에 자가 부딪히며, 자의 반대쪽이 한결이의 목 뒷편을 깊게 찔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놀란 아내의 비명이 울렸고, 저는 피를 흘리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당황했습니다. 폐천에는 병원이 없어,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3시간 거리인 티라나로 급히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 선교사님이 아이를 진찰하며 여러 의학 서적을 살폈지만, 한결이는 너무 어려 전신마취는 위험했고, 상처 부위를 다스 누그러뜨렸고, 예상과 달리 소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하나

되었습니다. 피는 서서히 멎었지만, 상처의 깊이나 회복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픔에 울먹이는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길, 제 안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지금, 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왜입니까?”. 자정이 넘은 늦은 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울었고, 둘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임 선교사님이 우체국에서 받아온 작은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성탄 선물 같아요” 둘째가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선교훈련을 받던 청년들이 보낸 작은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 모자, 목도리, 모래놀이 장난감, 그리고 고래밥 과자 한 상자. 아픔과 피로에 지친 한결이는 상자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내 거야?” 그전까지 “아빠, 아파...”를 반복하던 아이는, 고래밥을 하나씩 조심스레 입에 넣으며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결이는 고래밥을 하루에 하나씩 비타민처럼 천천히 먹으며 회복해갔고, 상처에 그려진 큰 고래 그림을 오려 천대 머리맡에 붙였습니다. 작은 고래 그림들 도방 여기저기에 붙이며, 자신만의 치유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선교 보고를 위해 강단에서 종종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500원 짜리 과자가 뭐라고...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로 임하더군요. 무엇을 보내야 선교지에 도움이 될까 고민되실 때, 그 고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통로입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의 고래밥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떤 의약품보다 강력한 ‘사랑’과 ‘치유’의 복음 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준성 선교사

성결신문사 장로후원회의 변함없는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장  박근주 장로 더드림교회	사장  김종현 장로 참솔은교회	후원부이사장  김종상 장로 신수동교회	후원부이사장  윤세곤 장로 비산동교회	총무  이광섭 장로 성현교회	서기  이장호 장로 비산동교회	후원이사(고문)  유광현 장로 코디엠교회	후원이사(고문)  서종로 장로 신림제일교회	후원이사(고문)  이철구 장로 강서교회	후원이사(고문)  강규열 장로 주님앞에제일교회
후원이사  김원철 장로 평화교회	후원이사  김응하 장로 비산동교회	후원이사  박정식 장로 구로중앙교회	후원이사  이광섭 장로 창신교회	후원이사  장명반 장로 강서교회	후원이사  정기소 장로 수원중앙교회	후원이사  정현 장로 담심교회	후원이사  천민우 장로 합덕제일교회	후원이사  최승덕 장로 꿈을이루는교회	후원이사  황재돈 장로 신림제일교회

성결신문사 장로후원회

성결신문사 장로후원회는 본 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이광섭 장로(010-5284-6261)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